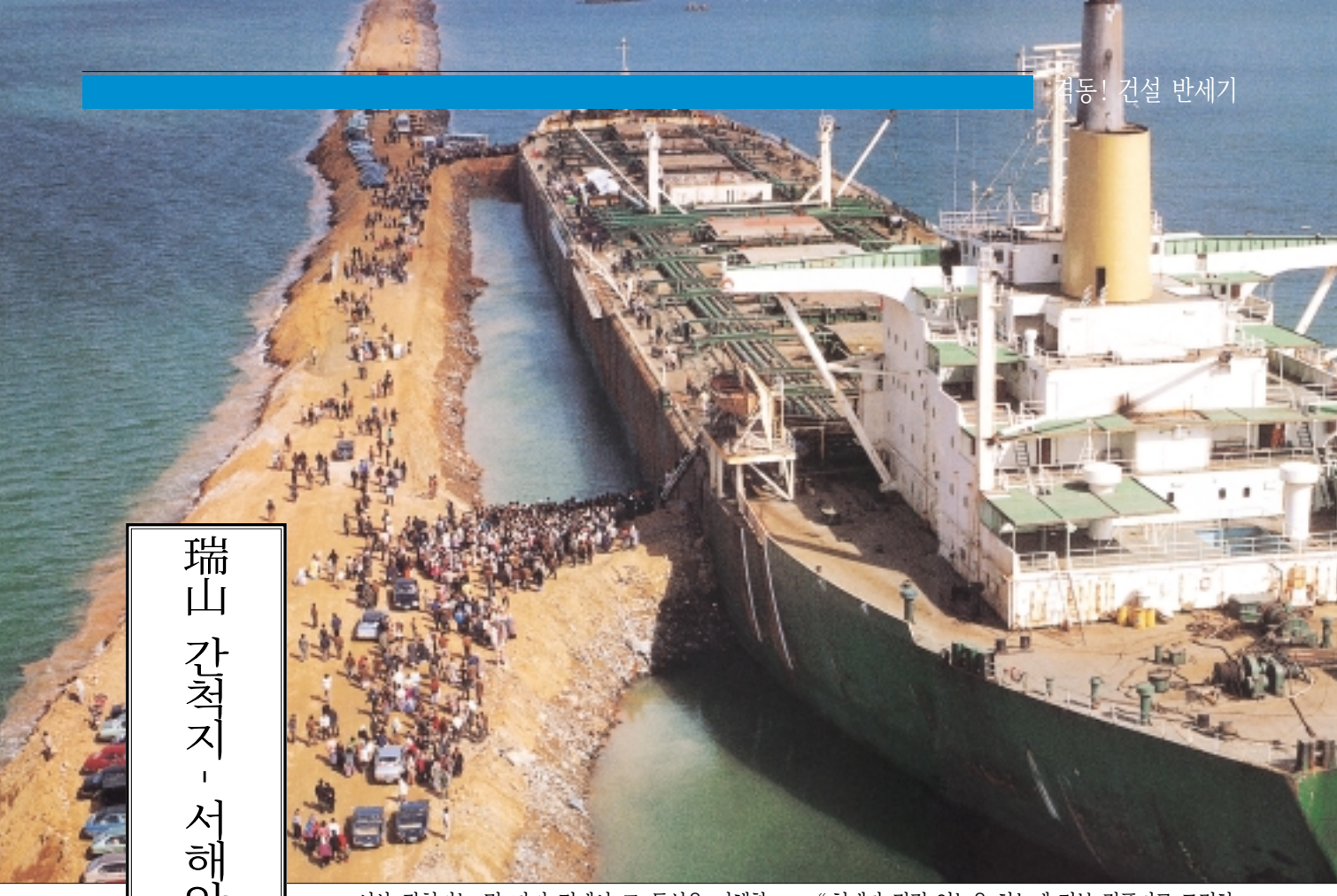


瑞山 간척지 - 서해안 지도를 바꾸다

이용선
작가 · 언론인

서산 간척지는 몇 가지 면에서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해안 지도를 바꿔 놓다

가장 먼저 서산 간척지가 생겨남으로써 서해안의 지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도가 바꾸어질 만큼 넓은 땅이 생겨났다는, 바로 국토 확장의 의미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이 100 만평이라고 한다는데 현대건설이 만든 서산 간척지는 4,600 여만 평이다. 이 중에서 농지만도 3,000 만평으로 단일 농장으로서는 지금도 국내 최대 규모이다.

"3,000 만평짜리 농장이면 대체 얼마나 큰 거요?"

"농지를 한 바퀴 돌아보는 데만 자동차로 1시간이 걸리오."

"그렇게 허허벌판 땅을 어떻게 갈라 두렁을 만들었을까?"

"두부모처럼 1필지를 4,600 평씩 딱딱 갈라 놓았소. 마지기 수로는 1필지 덩어리가 23 마지기 아니오? 김제 만경평야에서도 1필지라고 하면 보통 600 평씩으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넓으오?"

"농사는 누가 짓소?"

"현대가 직접 영농을 하는데 전부 컴퓨터로 조정하면서 기계로 짓소."

"모심기할 때에는 기계가 얼마나 바쁠까?"

"모내기는 하지 않고 비행기 3대가 농장 구석구석까지 날아다니며 볍씨를 뿌려 버려요. 논바닥에 볍씨를 직접 뿌리는 직파법이지요. 농약도 비행기로 주고…"

"추수 때는?"

"140 마력짜리 대형 콤바인 63 대가 일제히 웅웅거리면서 동원되지요."

"쌀은 얼마나 나올 수 있소?"

"85 만 가마니요."

서산 농장에서는 이렇게 수확한 곡물을 45 m 높이의 창고형 사일로에 저장하는데 한번에 30 톤씩 들어가는 사일로가 6개나 된다. 여기에서 벼의 이적 · 이송 · 건조 등을 모두 컴퓨터로 자동 조절하고 있다. 또 매 필지마다 작황 상태, 환경 정보, 수온, 염분 등을 컴퓨터가 체크하며 농사를 관리하고, 논바닥을 판판하게 고를 때의 작업은 특수 기계가 레이저로 땅 높이(판판하기)를 측정하는데 진흙 덩어리이지만 2㎝ 높낮이까지 적발해 수평을 잡아준다고 한다. 그야말로

서산 간척지 매립 공사는 우리 건설 특유의 돌관 작업으로 이뤄졌다.

21세기 한국 영농법을 서산 농장이 세계에 선보이고 있는 기적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중동 열기 식자 국내 시장으로 발길 돌려

그러면 이러한 서산 간척지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 무렵에 현대는 서산 간척지를 만들고 동아는 김포 매립지에 참여하여 작업을 서두르고 쌍용은 진해만을 매립하여 공업 단지, 주택 단지, 위락 단지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무엇이건 국내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내야만 '건설'이 살 수 있어 정부도 임하, 임계, 함양, 홍천, 명천 등 5개 다목적댐을 막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대림, 삼환, 한양, 대우, 한보, 한일, 극동, 남광, 삼부 등 10여 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일제히 참여를 희망하고 나섰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왜 저렇게 국내 공사에 서로 나오겠다며 경쟁하는 것이오? 중동 건설시장에서 달러를 벌어와야지 엽전이나 서로 먹겠다고 합덕 방죽가에 남생이 늘어앉듯 죽 목을 빼고 있구나."

"중동은 이제 한물갔소. 역(逆) 오일 달러로 석유값이 내려가자 그 사람들이 옛날처럼 건설 공사를 흥청망청 벌려야 말이지. 이젠 해외건설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야지, 별수없소."

1978년까지만 해도 중동 건설로 많은 달러를 벌어들인 건설업체들이다.

그런데 1979 80년 들어서는 그쪽의 열기가 갑자기 식어 한국 해외건설업체들은 국내로 철수해오지 않을 수 없고, 그러자니 국가도 이 문제 해결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었다.

"그 때 박정희 대통령은 현대 정주영 회장을 불렀지. 두 사람은 경부고속도로를 신화적으로 성공시킬 때부터 배짱이 잘 맞던 사이 아니었겠소? 그래서 정 회장이 해외 건설시장에 나갔던 회사들이 이제는 국내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충을 얘기했지. 그때 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정 회장, 애국 좀 합시다' 하더랍니다."

"애국이라니요?"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또 공업 국가가 되어도 전쟁이라도 나면 어쩌냐? 무기 못지 않게 쌀도 중요하니까 서해안 바다를 메워 간척을 대규모로 해 달라는 얘기였지요."

박 대통령, "간척이야말로 진짜 애국"

국내에서는 대규모 댐을 막고 아파트 건설을 활발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척 사업이야말로 진짜 애국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말을 듣고 정주영 회장은 감명을 받았다.

"'동감합니다. 식량 부족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업에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각하께 저도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면서 매달리더랍니다."

"무슨 조건?"

"첫째는 해외에 나간 우리 건설업체들이 국내로 들어와 간척 사업 등을 하자면 중동에서 쓰던 건설 장비를 도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건설 장비 반입에 세금을 매기지 말고 면세로 통관시켜 달라는 것이었지요."

"둘째는?"

"간척지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용지 보상비를 정부가 부담해달라는 조건이오."

"셋째는?"

"서산 간척지 건설 자금의 절반(50%)을 융자해 달라는 것이었소."

간척 사업에 투입된 트럭의 행렬.

수익성은 의심되었지만…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건설 현장에서 쓰는 전력(발전) 단가의 적정선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런 얘기가 오고가다가 현대가 서산 간척지 건설 사업 면허를 받은 것은 1979년 8월이었고, 뒤이어 1980년 1월에는 동아건설도 김포 매립지 허가를 얻었다.

이에 앞서 정부도 1979년 1월 농수산부 고시로 '민간 사업에 의한 대규모 간척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농지 소유 규제의 문을 열어주었고 해외 장비 면세 통관 등의 지원책을 써 적극적으로 뒷받침에 나섰다. 그러나 현대로서는 얼른 내키지 않는 공사로 여겼던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륵이었다. 그래서 면허장만 쥐고 시큰둥한 태도였는데, 그 까닭은 어째서였을까?

"박 대통령이 하명(?)하다시피 해서 맡기는 했지만 수익성이 많은 공사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왜? 쌀 값 보장 때문이오?"

"그 문제는 나중 얘기이고, 우선 공사 기간이 10년 이상 걸립니다. 간척지를 막는 데 5~6년은 걸리고, 그렇게 막아놓은 땅에서 소금기를 빼내는 데도 5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안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나 묶혀 있어야 합니까? 자본의 회임 기간이 10년 이상이니 쉽겠소?"

수익성이 의심되는 사업이지만 일단 착수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 사업이었다.

이래서 설계 측량을 다하고 보니 충남 서산군 남면 적돌호 일대가 '서산 B지구'로 5,930 ha요, 서산군 고북면 사장호 일대의 서산 A지구가 9,664 ha로 나왔다.

여기 들어갈 총사업비는 1,926억원으로 잡혔고, 예정대로 1989년에 간척지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1만 890정보의 광활한 땅이 새로 생겨날 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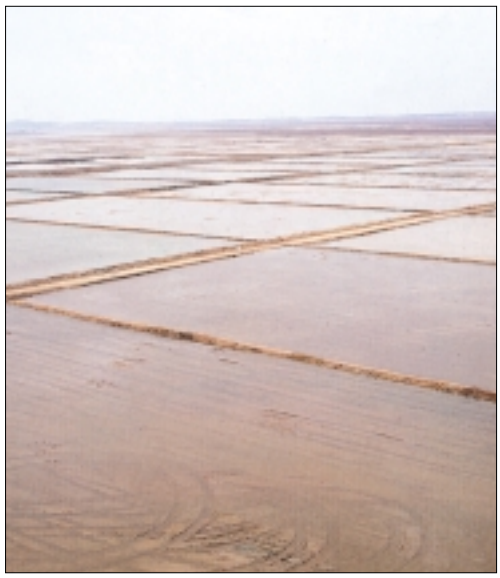
"그 땅에서 16만 7,000섬의 쌀이 나올 수 있는 농지가 만들어지고, 소 6,700만 마리, 돼지 10만 6,000만 마리를 기를 수 있는 축산 단지도 만든다고 설계했지요."

"땅을 모두 농지로만 계획했소?"

"아니오. 서산군 대산면 독곶, 오지, 기은리, 대죽리 일대의 337만 6,000평을 매립하여 공단도 건설하기로 했소."

"무슨 공단?"

"고선(古船)을 해체하고, 중공업 부품을 생산하고, 원유 비축 정유 단지로 활용할 것이오. 그렇게 당국과 교섭을 하고 있소."



개답 작업 완료 후 구획 정리가 된 농지.

1980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서산 A지구에서 9,664 ha, 서산 B지구에서 5,930 ha 등 1만 5,594 ha를 얻으며 11년 공사로 1990년에 완공되었다. 대호 지구 간척도 1980년에 함께 착공되어 1986년에 완공하여 이른바 서산 간척지를 대단위로 탄생시키며 서해안 지도를 바꿔놓았다.

"대호 지구 간척지도 있었소?"

"당진읍 서북쪽에 있는 대난지도 섬을 연결해 대륙 쪽으로 닭발처럼 뻗친 바다를 막은 것이오."

"그 대호 지구도 현대가 했소?"

"농업진흥공사가 했지요."

궁즉통… 대호에서도 새땅 7,650 ha를 만들다

거기서도 7,648 ha의 땅이 나왔다. 이러니까 서산 간척지는 국내 건설시장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 중동 해외건설에 참여했던 건설회사들이 궁즉통(窮則通, 막히면 뚫릴 구멍이 생긴다는 의미)으로 탄생시킨 땅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등에서 달러 벌이에 활용했던 장비와 인력을 놀릴 수 없어서 '수익이 없어도 인건비만 나오면 한다'는 절박감에서 서해안의 지도를 반듯반듯하게 방조제로 그어버린 것이다. CJ

건설산업의 발전에 온몸으로 기여해오신 원로 건설인 선배들의 정열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건설업의 역사도 제대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야사, 비화 등을 찾고 있습니다. 사나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땀방울, 그리고 의리와 배신… 등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채택된 이야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